

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

임진국 jklim@hri.co.kr ☎ 724-4018

- (개관) 99년 말 혹은 200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4월 12일 열림
 - 개편의 핵심 방향은 「채무기업의 미래 부채 상환 능력(forward-looking criteria)」을 중시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한다는 것임
- (주요 내용과 특징) 대상 자산의 분류 체계를 크게 기업 여신, 가계 여신, 유가증권 등 3가지로 개편하며, 유가증권도 건전성 분류를 하게 됨
 - (기업 여신) 기업 신용평가 실시, 해당 기업의 개별 여신 특성에 따른 등급 조정 등 2단계 건전성 분류 방식을 도입하고 미래의 신용위험 관련 정보를 반영함
 - (가계 여신) 일반 여신, 신용카드 채권으로 구분됨
 - (유가증권) 여신성 유가증권(직접 매입 CP), 시장성 유가증권(주식, 공모채),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(사모채) 등으로 나누어 건전성 평가
- (예상 영향과 전망) 은행의 보수적인 여신 운용과 기업 경영 평가 강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
 - 종전 기준에 의해 정상·비정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대다수 기업들이 비정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, 채권 은행들이 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음
 -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의 강제성 여부가 은행의 대출 기준 엄격화를 결정하고, 차입 기업의 경영 평가 강화 등 대출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
- (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) 기업들이 채무제표상의 건전성 제고 이외에,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됨에 따라 사업별 수익성, 현금흐름, 위험관리 등의 개선 및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

최근 주요 정책(1999. 4. 12 ~ 4. 18)

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 방안	예금보험 공사 (4.15)	- 은행, 증권사,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을 동일 업종 내에서도 재무건전성 및 위험도에 따라 4 단계로 차등화
기업구조조정 압박	금융감독 위원회 등 (4.14)	- 건설업체 중심 10여 개 워크아웃 계열 추가 선정 -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실적 부진시 엄정한 금융제재 실시 - 워크아웃 추진 계열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- 5대그룹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실적이 부진하면 워크아웃 추진 유도
성업공사법 개정	국회 (4.14)	- 성업공사가 출자전환과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도 기업 희생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- 더불어 부동산 구입 및 매매 알선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도 지원할 수 있게 됨
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	은행연합회 (4.12)	- 기업의 재무구조보다는 수익성, 영업현금흐름과 신용위험 등을 토대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도입을 시사 - 이로 인해 향후 기업대출관행의 변화가 예상됨

주요 정책 정보(1999. 4. 19 ~ 4. 25)

4. 21(수)	○(대한상공회의소) 종합물류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
4. 22(목)	○(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) 단일항공법인인 (주)한국항공우주산업(가칭)을 군수용 및 민간용 항공기와 다목적위성 제조 전문업체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의회 개최 · 이 법인에게 국내 발주 물량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할 방침
4. 23(금)	○(통계청) 99년 3월중 고용동향 발표.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률 급증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
4. 25(일)	○(재정경제부) 4월말과 5월초에 걸쳐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단기자본이동과 헤지펀드 규제책 등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. 이와 관련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한국보고서 작성·발표 ○(한국개발연구원(KDI)) 경제전망 발표